

마태오 복음서 20장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수확 시기에는 일꾼이 부족하므로 밭 주인은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시장 터에 나가 일꾼들을 구한다. 아침 일찍 나가야만 필요한 일꾼들을 필요한 만큼 구할 수 있다.

- 2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 1) ”아홉 시“는 제3시, ”열두 시“는 제6시, ”오후 세 시“는 제9시, ”오후 다섯 시“는 제11시이다.
- 2) 밭 주인은 처음 일꾼들하고는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합의하였다. 그다음 일꾼들하고는 ‘정당한 값’을, 오후 다섯 시에 만난 일꾼들은 그저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라고만 하였다.
- 3) 밭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시점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다.

-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¹⁾
-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 레위 19,13 :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명 24, 14-15 :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발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띄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친구여“는 가까운 벗들 사이에서도 쓰이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를 때 점잖게 부를 때도 쓰인다. 그래서 이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친절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뜻도 내포한다. 신약성경에서는 마태오 복음에서만 세 번 나오는데. 세 경우 다 처신을 잘못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²⁾

-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1) 발 임자는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지급하였다.
- 2) 발 임자의 처사는 정의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발 임자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늦게 온 자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발 임자 마음이다. 발 임자가 자신의 것을 제 뜻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더구나 포도밭에 늦게 온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지 악한 일은 아니다.
- 3) 바리사이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응보를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수로 여긴다. 그러나 하느님의 선하심은 그러한 응보의 인간적인 범주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다고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자유 앞에서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³⁾
- 4) 하느님의 초대는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움에서 오는 것, 곧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⁴⁾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28쪽, 각주 5.

3) 위, 각주 6.

4) 마르 10,31 :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 1) 첫째는 기득권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을, 꼴찌는 소외된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 2)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먼저 왔든 늦게 왔든 같은 액수의 품삯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늦게 부름을 받은 이교인들이 앞서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다.⁵⁾
- 3)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들은 많지만, 먼저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포도밭에서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중요하다.
- 4) 세례성사를 먼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제 몫을 다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마르 10,32-34; 루카 18,31-34)

- 17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18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 19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⁶⁾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관한 이전의 두 예고에(16,21-23; 17,22-23) 비해 이 마지막 예고에는, 다른 민족들의 역할, 조롱, 채찍질, 십자가형 등 세부 사항들이 들어있다.⁷⁾

출세와 섬김(마르 10,35-45; 루카 22,25-27)

- 20 그때에 제베대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 2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⁸⁾ 하고 말하였다.

루카 13,30 :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5) 앞, 각주 7 참조.

6) 1코린 15,3-4 :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7) 앞, 128-129쪽, 각주 9.

8) 루카 22,30 :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 1) “오른쪽”과 “왼쪽”은 상석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분의 권위와 권력에 밀접히 참여함을 뜻한다.⁹⁾
- 2) 여기서는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보인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요 헛된 명예심이다. 이는 부패한 허영심이다.

22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1) ‘잔을 마시다’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리킨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기원후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다.¹⁰⁾
- 2)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이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고 계심을 강조하시는 것이다.¹¹⁾
- 3)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의 욕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다.

24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다른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긴 것은, 그들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2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7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¹²⁾

9) 앞, 129쪽, 각주 12.

10) 위, 각주 13,14.

사도 12,1-3 : 그즈음 헤로데 임금의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11) 위, 각주 15.

12) 필리 2,7-8 :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

- 1) 예수님께서 정치적 권력 자체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력이 제자들의 세계에서는 본보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¹³⁾
- 2) 남을 섬길 때, 비로소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모범은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다.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마르 10,46-52; 루카 18,35-43)

- 29 그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 30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31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32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 33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34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 1)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자비를 청한다. 자비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 2) 두 소경의 청원은 일차적으로 병을 고쳐주십사하는 것이고, 아울러 구원의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십사는 상징적인 뜻도 담겨있다.¹⁴⁾
- 3)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음이요, 눈을 뜬다는 것은 신앙의 눈을 뜬으로써 예수님을 제재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을 따라나서야 한다. 곧 예수님께 전적으로 투신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1티모 2,6 :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13) 위, 각주 17.

14) 위, 130쪽, 각주 22 참조.